



3,000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6 년 8 월 8 일

이번 달에 예즈볼라는 이스라엘로 3 천 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고, 그것은 전부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정책과 정확이 반대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한 한 민간인 지역을 피하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상자 수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적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100 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떠나 피난처에 살게 되고, 사업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실의에 빠졌고, 아이들은 침상을 적시며 울고 있으며, 10 대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비탄에 잠겨 있으며, 어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토요일 밤, 두 대의 거대 미사일이 폭격에 성공하여 길라디 마을과 아이파 중심부를 파괴, 하루 만에 12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숫자 맞추기 놀이 같아 보였지요. 조만간 뭔가 터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시니오라의 눈물

어제 아랍국 대사관들과의 외담에서 레바논 대통령 시니오라는 자국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감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애가 갑니다. 우리는 그와, 또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레바논의 모든 이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레바논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공물을 표아간커녕, 그들을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몰아 넣고 있는 나스랄라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이며, 그 답은 분명하고 일관적입니다. 이슬람 지하드 세계가 이스라엘 국가의 전적 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레바논이 왕폐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째서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안 가지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온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고, 또 그를 위해 순교를 하는 등 '성전' 을 믿는 그들의 종교에 세뇌되고 미혹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란과 시리아에서 무기, 재정, 물자 등 모든 것을 대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들은 이란의 최전방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가 아니었다면, 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루도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을 파괴시키려 계획적으로 공격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대응이 과도하기는커녕 답답할 정도로 미온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 병력 강화

이번 주에 카슈샤 미사일 공격이 증강됨에 따라 이스라엘 국외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북쪽으로 더 광범위하게 진입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쪽에 더 많은 사상자를 남게 될 테지만, 공습을 감행하는 것보다는 레바논 측 민간 사상자가 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스볼라 세력을 국경에서 멀어지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스볼라를 압박하여 충분히 우퇴를 시키고, 또 그들의 기간시설이 전부 파괴되면 그 때는 아마 적절한 휴전이 이루어져, 레바논 정부가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즐라트

마즐라트는 작은 무인 로봇 비행기로 정찰 혹은 폭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교한 GPS 로 조종되지요. 어제 에스볼라는 이스라엘 쪽으로 마즐라트 안 대를 보냈고, 해변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에 잡이지 않도록 물에 바싹 붙어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시속 150km 의 속도로 아이파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그것을 발견하였고, 바다 위에서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발포의 세 범위

에스볼라는 손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거리 발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또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발사하여야 하고, 피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럭에서 발사하는 것입니다. 에스볼라의 전술은 안 트럭에서 발사를 하고, 즉시 그 트럭을 민간 건물 내부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큰 피해를 가하며, 위치 추적도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모가 큰 미사일로 지상에 설치하고 발사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 더 쉽게 위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이파에 있던 큰 피해도 이러한 미사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매번 에스볼라는 이들 중 하나를 택해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수시간 내에 발사대를 파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이 계속되면서 에스볼라의 발포 능력이 빠르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켜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스랄라는 어풍 가득한 연설을 하고 있지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사과

로이터 국제 보도국은 베이루트의 참상을 담은 두 장의 사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페인트 포토샵’ 영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애가 확대 조작된 것이었지요. 여기에 나타난 문제는 동일한 무슬림 사진 기사가 이번 전쟁에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전세계가 반 이스라엘의 방향으로 기울도록 선동하는 데 많이 이용된 카나 사태를 촬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나에선 처음에 56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엔 28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재앙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주목해야 할 점은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의 개념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와 더불어) 유대-기독교 세계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테러와 선전 운동은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적 윤리 기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겐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요한

예레미야는 제 1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바벨론(현재의 이라크)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권세를 주사 열방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10

다니엘은 그 다음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글들을 읽고 또한 열방과 역사에 관해 예언했으며, 주로 바사(현재의 이란)에 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새책으로 말미암아 여오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왕무암이 칠십년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운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2~3

21 일의 기도 후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이십 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10:13

요아난(신약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요한)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글을 모두 읽고 그 영적 권세를 이어 행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더라” 요한 계시록 10:11

하지만 예레미야와 다니엘, 요한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그들의 역할을 이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예언적 중보를 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지요. 예슈아를 통해 우리는 정세와 권세에 대항할 그와 같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렘 1:20, 2:5, 6:12, 눅 10:19, 고후 10:4) 우리는 이것을 계시로 받고 나가 실제로 싸워야만 합니다.

UN 과 엘라의 영

UN 안보리는 유전 문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를 내일(수요일)로 잠정 예정에 놓았습니다. 정작존의 군사-정치적 면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분쟁 배우에 있는 세계관과 철학의 충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만 에스볼라의 재무장을 제안해놓고 정작존 문제를 논아싸고 주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안보리 가운데 행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벨론과 바사가 이슬람 수니/시아파의 테러와 반유대주의 가운데 오늘날에도 존속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또 다른 영이 있는데, 엘라 자손의 것입니다. (단 8:21, 10:20, 11:2, 숙 9:13) 이것은 오늘날 유럽과 서방에서 올라 나오는 짝파 언론과 무신론적 인본주의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이 겪었던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 앞에, 더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배우에서 임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벨(바벨론)과 파라스(바사), 그리고 야반(엘라)의 악령들을 묶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정말 중겠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열심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전기를 놓쳐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번역: 고병연